

美國의 9·11 테러침사 韓國의 안보(2)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국제전시이사, 政博 최명상

다.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과 알 카에다(Al Qaeda) 테러조직의 반미활동

오사마 빈 라덴은 예멘 출신으로 1931년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민온 모하마드 빈 라덴(Muhammad bin Laden)의 50여명 자녀중 하나로 태어났다. 머리가 우수하고 사업에도 수완이 있어 꽤 많은 부를 축적한 성공한 재산가가 되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우드 왕가가 독재정권으로 미국과 결탁하여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미 군산복합체(US Military-Industry Complex)의 고객으로 전락된 채 오히려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서 7,000달러로 감소되고 빈부의 격차만 심해지자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반정부활동을 도왔다.

그는 소련의 아프간점령에 반대하여 요르단(Jordan)의 아잠(Aldullah Azzam)이 아프간 국경지대에 설치한 이슬람성전 훈련소를 돕기 위해 사우디에서 파키스탄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아잠이 소련과의 전쟁에만 전념하고 다른 아랍정부의 전복을 반대하자 그와 결별하고 이집트에서 1981년 사다트 대통령 암살에 가담했다가 도망은 과격파들과 합세하여 1986년 알 마사다(Al Massadah) 훈련소를 설립하고 이어, 1988년에는 전세계적인 이슬람성전을 위해 알 카에다(Al Qaeda) 조직을 설립하였다.⁸⁾

1989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적절한 공격대상이 없던 이들은 1990년 걸프전쟁이 발발하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분쟁에서 고조된 반미 감정이 폭발하여, 이들 과격분자들과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테러조직은 미국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제1의 적으로 삼아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도망한 라만(Sheik Omar Abdel Rahman) 등과 합세하여 1993년 뉴욕 세계 무역센터의 폭파를 시도했고, 소말리아의 미국 구호센타를 공격하였고 1995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미군 살해사건과 1996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숙소를 폭파하였다. 1998년 케냐(Kenya)와 탄자니아(Tanzania) 소재 미 대사관을 폭파하였고,

2000년 미 구축함 콜(Cole)호 공격 등으로 계속되다가, 마침내 지난해 9월 11일 미 본토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그외에도 중동지역에는 여러 개의 테러조직이 있으나 중요단체는 헤zbollah(Hezbollah)와 하마스(Hamas),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이 있다. 조지 하바시(George Habasi)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은 1968년 이스라엘 항공기 엘 알(El Al)을 공중납치한 이래 무려 35건의 항공기 납치테러를 단행했다.⁹⁾ 1972년 5월의 로드공항 학살사건, 1973년 7월 싱가포르 석유저장고 습격사건, 1975년 12월 빈에서의 석유수출국가기구(OPEC) 회의장 점령사건 등과 지비 이스라엘 관광장관을 살해한 것도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드라간이 이끄는 헤zbollah는 남부 레바논을 찾기 위한 무장운동조직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자살특공대로 레바논 베이루트에 본부를 두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자살특공대인 하마스는 중동에서 최강경과 저항단체로 1987년 12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로부터 영토회복이라는 민중봉기중 하반신 불구의 이슬람교도 야신(Sheik Ahmed Yassin)에 의해서 조직되어 과격하게 무력항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들로 팔레스타인 엔지니어들이 많으며 6~8개의 다이나마이트 허리띠를 차고 다니며 "저승에서 올라와 의 삶이 현세보다 낫다"고 순교작전을 하는 이슬람 광신자 조직이다. 이들은 1994년부터 이스라엘 각지에서 자살특공대를 이용해서 버스, 식당, 공공장소에서 테러행위를 자행하였다. 야신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1989년 구속되었다가 1997년 석방되었지만 미국에 대하여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저항운동으로는 오직 무력항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중시하던 외교활동에 의한 분쟁해결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은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이나 자결권운동이지 테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

이렇게 중동의 테러단체들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싸움속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대중을 동원한 장례식과 집회를 통하여 반이스라엘,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자기네 옛 땅과 이슬람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 정신을 심어주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폭탄 지원자들이 들끓게 하고 있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은 청소년들을 충동질하여 순교하면 알라신 옆에서 영생을 즐긴다고 유혹함으로써 자살테러 후보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게 이슬람은 종교차원 이상의 삶 자체이다. 그들은 코란에 있는 대로 하루 5번 기도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일년에 한번 씩 성지 순례를 하며, 신앙고백을 하면서 라마단 금식을 통해 알라와 가까워지고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한 국제적 테러리즘은 1980년대 들어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대형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르러서도 이러한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나라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바, 수단 등으로 테러리스트 단체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다. 미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들 국가들은 헤지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¹⁾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의 9·11 테러참사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입장에서 美國 주도의 Pax Americana와 이스라엘 우대정책으로 일관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테러집단의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지금의 전쟁이 십자군전쟁이라고 알카에다의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이지 코란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이 "미국은 십자군전쟁의 후에, 인디안 원주민 추방, 노예수입으로 이룬 나라이므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며 그들과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¹²⁾고 지적했듯이 국제적 테러조직의 뿌리를 제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테러조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통분담하며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2. 미국 주도의 國際經濟 질서변화에 대한 이슬람 과격파 테러조직의 저항

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의 자유방임적 自由貿易主義와 세계화 시대 도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1944년 세계국가들과 뉴욕 북쪽지방인 브레튼

우드(Bretton Woods)에 모여서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맺었다. 이 협정은 Pax Americana에 걸맞는 세계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자유방임적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세계 기축화폐를 미국 달러(US Dollar)로 하면서 금본위제와 固定換率制(Fixed Exchange Rate Systems)가 채택되었고, 국제통화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은행인 세계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재정기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uncil)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미국의 재정이 악화되고 일본과 독일의 경제부흥으로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1960년 일본과 독일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 이어서 1970년에는 도쿄 라운드(Tokyo Round)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된 닉슨(Richard Nixon)은 도쿄 라운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누적되자 1971년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lan)을 발표하고 금본위제 포기과 變動換率制(Floating Exchange Rate Systems)의 채택을 공표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동서냉전은 새로운 긴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마침내 1990년 소련의 붕괴로 명실공히 미국 주도의 Pax Americana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도 미국의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미국을 중심으로 G-7 국가들은 세계화를 내세우며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합의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창설하였다. 韓國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IMF 외 환관리체제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경제대국으로 성장일로에 있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키고 지난해 11월 14일 카타르에서 극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경제질서인 뉴 라운드(New Round)를 출범시켰다. 반덤핑, 농업, 서비스 등 각분야 실무협상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3년간 협상을 거쳐 2004년부터 실시되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세계화정책으로 세계속의 貧國과 富國의 차이는 50년전 10대 1의 격차에서 현재 100대 1의 격차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약소국가들과 일부 지성인의 시민단체(NGO) 등은 선진부국들의 횡포라고 반발하면서 세계 곳곳의 국제회의장 밖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 취임이후 강력한 美國 주도의 Pax Americana와 신자유주의적 국

제경제질서의 세계화에 대한 테러집단의 저항이 9·11 테러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가장 보편적 가치로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세계화의 역사적 흐름을 거역하기 어려우며,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그의 국부론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따른 부(富)의 편중에 대한 폭력저항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구소련이 붕괴한 것처럼 마르크스(Karl Marx)가 주장하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한 사회국가는 이룩되기도 전에 역사의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¹³⁾

나. 범 아랍민족주의의 실패 및 이슬람종교 경제개념과 미국식 자본주의의 갈등

제1차 세계대전 후 오토만제국이 붕괴하면서 아랍민족들은 구심점을 잃고 있다가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등의 인공적인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겨우 국가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염원은 아랍민족이 중동지역에 국경을 초월한 범 아랍민족국가(Pan Arab Nationalism)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희망은 1956년 수에즈운하의 국유화 이후 이집트의 나세르가 아랍전체의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합으로 한층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아랍민족주의(Arab Nationalism)의 상징이었던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합이 불과 3년만에 결별되고 1967년 이스라엘과 '6일 전쟁'은 아랍의 참패로 허망하게 끝나 버렸다. 또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급상승한 원유가격은 중동의 여러 아랍국가들이 합심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연대감을 고양시켰으나 산유국들간의 이견으로 거절됐고, 1978년 사다트(Sadat)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으로 조그만 희망마저 좌절되고 말았다. 1990년 걸프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아랍의 지식인들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찬성했으나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등이 미국을 비롯한 이교도들에게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전투병까지 지원해 미국의 걸프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랍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충됨을 전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범 아랍민족주의가 허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된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 후 아랍민족의 정체성 공백기에 그 대안으로 찾은 범 아랍민족주의(Pan Arab Nationalism)가 허망하게 무너지자 아랍인들이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Identity)밖에 없었다. 순수한 이슬람 원리주의는 광범위하게 이슬람 교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슬람국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활용된 것이

아나라 과격하게 변질되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로 묶여진 유일 신앙이다. 정치, 경제보다도 문화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언어, 복장, 남녀관계, 가족, 부족보호 등이 경제나 과학발전보다 우선될 수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비합리적 사고가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코란에 의하면 알라신은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는데, 모자라는 것은 인간들의 욕심때문이므로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상적인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인간들이 순수한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이 될 때,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평화스러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믿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들의 코란에는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모순되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코란의 가르침은 자연히 국민들의 저축을 위축시켰고, 도전적인 비즈니스정신이 없고, 자본주의체제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경제이론인데도 아랍세계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나세르의 아랍식 사회주의(Arab-Socialism)도 합리화되었던 것이다. 그는 경제발전정책을 생산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직업창출에 역점을 두어 이는 오늘날 이집트의 많은 공공산업체에 하급 근로자보다 상급 근로자가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온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한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고자 사다트(Sadat)에 이어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적자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코란적 경제사상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아랍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서구식 경제발전이 대부분 실패하였다.

경제발전에 실패한 국가들은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강력한 억압정치를 강구하여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속에서 사회불안이 가중되었다. 위정자는 경찰력과 정보기관의 감시를 강화하고 점점 더 부패해갔다. 이렇게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서구식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에 실패하고 국민들의 생활향상과 복지사회 건설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Islam is the solution)고 생각하고 완전한 이슬람 국가건설을 희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 노력이 기성 정치체제와 기존의 정치엘리트에 의하여 좌절되고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다고 믿게 되자 과격분자들은 테러조직을 만들어 저항한 것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젊은 세대와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이 막히고 혼전 이성교제가 금지된 중동문화권에서 결혼의 길마저 막막하여 좌절된 이들은 자연히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선동에

동조하게 되었다. 미국 뉴욕 타임스지도 아랍지역의 이슬람 과격 운동은 바로 카이로의 빈민촌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막도시에 있는 무기력감과 좌절감밖에 느낄 수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서 기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¹⁴⁾

이렇게 아랍의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과 좌절감으로 오직 이슬람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방법이라 믿고 과격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과격하게 된 원인은 중동국가 위정자들의 횡포와 부패정치 엘리트에게도 그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다. 석유파동시 취업인구 이동에 따른 후유증 심화와 부패한 정부의 횡포

1973년 석유파동이 일어나자 대부분 가난한 중동국가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중동역사상 유래없이 걸프지역의 산유국으로 일자리를 구해 이동해 갔다. 이들 노동자들은 산유국 현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산유국 당국자들의 행태가 그들이 여태껏 생활의 원칙으로 삼아왔던 이슬람 원칙에 위배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함을 목격하게 된다. 술을 마시고, 집안의 어린아이들은 이교도인 필리핀 여성에 의하여 길러지고, 자녀들은 미국과 유럽에 유학보내고, 문란한 이성관계와 현지민들의 타락된 생활이 낱낱이 드러났다.

또한 부(富)는 알라신이 아랍형제들이 공유하도록 준 것인데 미국과 서방국가들만이 독식하면서도 못사는 나라에 원조는 주지 않고 팔레스타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이슬람 과격파 지도자들은 거칠고 원색적인 말로 설교극음 테이프를 통해 문맹자인 시골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설교는 감수성이 많은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산유국 부유층 위정자들은 이슬람을 저버리고 타락했으며 그 배후에는 미국과 서방국가라는 반이슬람교도인 자본주의자들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은 타파되어야 하고 순수한 이슬람원리로 돌아가는 길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과 현장 목격담 등이 직간접으로 전파되면서 부패한 정부와 타락한 위정자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과격파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빨리 테러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 뿌리치고 이슬람 성전을 위한 전사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고생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슬람 과격테러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질서 변화속에서 대이스라엘 우대정책 및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세계화가 9·11 테러참사의 국제관계사적 배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그 명분이 될

수 없으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본주의가 그들의 종교원리와 위배된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발전해온 길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유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듯이 이슬람교의 개혁없이 현대 세계경제체제로 편입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헌팅톤(Samuel Huntington) 교수는 90년대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중의 절반 가량이 이슬람 대 비이슬람의 전쟁이라며 무슬림전쟁을 냉전과 같이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전쟁으로 보고 있다.¹⁵⁾ 그리고 9·11 테러사태가 서방의 단결을 낳았듯이 대테러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슬람의 단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는 9·11 테러사태를 그의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역사의 완성적인 형태라고 밝힌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슬람 파시즘(Islamo-Fascism)이 테러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¹⁶⁾ 그는 이슬람 파시즘과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두개의 문명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서구 민주주의로 세계의 모든 문명이 수렴되는 현상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민주화된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보듯이 차체에 미국이 대 중동정책을 개선하여 이슬람의 반미감정을 줄이고 온 세계가 그들의 민주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새로 출범하는 아프가니스탄 카이자의 과도정부를 도와 민주화와 재건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II. 이슬람과격분자의 미국 9·11 테러공격이 가능했던 직접적 원인

1. 탈냉전체제 이후 미 정보기관의 기능축소 및 대테러리즘 정책 부재

로버트 게이시(Robert Gaycy) 전 미 중앙정보부장(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회고록을 보면 공식 역사에는 이슬람전사(무자헤딘)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의 지원이 1980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들은 소련이 아프간침공을 감행한 1979년 12월 24일보다 6개월 전에 무자헤딘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당시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비밀공작 지령서에 처음 서명한 것은 1979년 7월 3일이었다. 바로 이날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브레제진스키(Zigbnew Brezezinsky)는 이것이 "소련군을 베트남전과 같은 수렁으로 유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 중앙정보부의 비밀공작은 소련을 아프간의 뒷에 걸리게 한 실로 뛰어난 아이디어였고 결

국 소련의 붕괴를 촉발시켰다. 이처럼 아프간이 초강대국 소련과 10년 항전 끝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파키스탄의 협조와 미국의 막대한 지원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시 수백억달러를 비밀공작에 투입한 것으로 보되된 바 있다.

이렇게 동서 냉전기 동안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자국의 막강한 정보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미 정보기관의 인원, 기구 및 예산의 축소를 가져와 그 기능이 약화된 것도 이번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개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체계적인 대테러리즘 정책이 없었던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다. 대테러정책의 시작은 테러리즘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매년 수백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테러리즘의 공격형태와 방법의 변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전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위험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였을 뿐, 이번처럼 납치된 항공기에 의한 테러행위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허점을 오사마 빈 라덴을 위시한 테러조직이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세계 일류를 자랑하던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등의 정보기관들이 이런 대규모 테러행위의 음모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이유는 테러범들이 암호와 특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여 가상공간을 그들의 전략회의실로 사용하고, 전자우편을 연락수단으로 사용하여 사전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⁷⁾ 전세계에 2억개 이상 존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화시대 대테러리즘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2. 미 본토에 대한 테러위협 과소평가 및 신속한 위기관리체제 부재

이번 미 본토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는 전례에 없었던 대참사였다. 그러나 이런 참사는 예고된 위협에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무역센터 건물은 1993년에도 테러공격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위원회는 미 본토방호를 위해 연방위기관리처(FEF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 해안경비대(Coast Guard), 관세기구(Custom Service), 그리고 국경수비대(Border Patrol) 등을 통합하여 미본토방호기구(National Homeland Security Agency)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참사를 당하고 난 후에야 현재 백악관내에 미본토방호사무소(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설치했다.¹⁸⁾

또한 미국은 이번 테러참사를 완벽히 막지는 못했더라도 그 피해의 폭은 줄일 수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본토에 대한 테러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동안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테러건수는 총 20건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치였고 미 본토에서 미국 국적의 항공기가 테러리스트에 납치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본토에 대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속한 위기관리체제의 부재가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테러리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득이 테러사태가 벌어지면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건물 공격에 이용된 여객기가 오전 08시 14분과 09시 05분에 각각 납치되었고 그 건물에 돌진 충돌한 것이 각각 09시 50분과 10시 29분이었다. 한편 미국 국방부 공격에 이용된 여객기는 09시에 이륙하여 곧바로 납치되었고 펜타곤(Pentagon) 건물로 돌진한 것이 09시 40분경이었다. 납치 후 공격행위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 30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위기관리체제의 미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항공기 납치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납치된 항공기의 항로를 정밀추적하면서 유사시를 대비, 요격기를 출동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통적 항공기 납치유형을 잘못 판단하고 신속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본다. 전통적인 항공기 납치사건의 경우 특정지역에 강제착륙시켜 납치범들의 정치적 목적을 선전하거나 인질 석방요구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은 9·11 사건을 이러한 평범한 납치 사건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납치범들이 항공기를 무기로 삼아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으로 돌진하는 자살공격을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만약 위기관리체제가 신속히 이루어져 요격기가 출동하여 격추시켰다면 승객과 승무원의 희생은 불가피했을 지라도 그 이상의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신속한 위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경제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의 붕괴와 미군 최고통수기관인 미 국방부가 공격을 당하고 만 것이다. 미 국방부는 세계 힘의 상징으로 전세계 미군의 지휘통제와 우주통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방정책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중추기관이며 15,00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전세계 미군의 사령탑으로 난공불락의 방위능력을 자랑하던 미 국방부가 공격을 당한 것이다.

미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제임스 울시(James Ulsy)가 탈냉전 상황을 “거대한 용을 죽였더니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이 되었다”¹⁹⁾는 표현처럼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후 미 본토에 대한 방호소홀

과 위기관리에 대한 체제미비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독사에 물린 것이다.

3. 비행 탑승객에 대한 미국 공항과 기내 보안검색체제의 미비

모두 20명 내외로 추정되는 테러범들이 4대의 여객기를 거의 동시에 납치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미국 공항과 항공기내의 항공보안 검색체계가 미비한데서 이번 대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를 포함한 항공테러리즘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항의 보안검색이다. 1989년 테러범들이 팬암(PANAM) 항공기를 폭발했을 때나 1996년 TWA 항공기가 롱아일랜드 상공에서 공중폭발했을 때 갖가지 보완대책이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검색강화에 따른 탑승객의 불편과 새 검사장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예산을 이유로 관련 항공업체가 강력히 반발하여 완벽하게 보완하지 못했다. 아울러 미국 항공당국의 의지도 확고하지 못했다. 항공기내 칼 반입 허용, 조종실 출입문 통용, 검색요원의 소지물품 검사소홀 등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보안상의 허점을 테러범들이 여지없이 활용한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하겠다.²⁰⁾

이러한 공항과 여객기의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체제는 우리에게도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루고 있는 우리도 미국의 대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IV. 미국 주도의 세계화시대 테러방지 와 韓國의 안보

1.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경제질서시대 韓國의 국방 및 안보정책 방향

대한민국 국가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과 영구적 독립보전, 복지사회 실현, 국제적 지위향상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안보목표는 외침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Pax Americana의 세계화시대에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은 우리가 그동안 견지해온 대로 첫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²¹⁾는 교훈처럼 확고한 자주적 國防태세 확립으로 적의 도발을 막아야 하고 둘째, 평시 韓·美연합 억제전략 및 강압전략으로 北韓의 한반도 테러행위 및 적화통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전시에에는 반드시 이기는 戰勝전략과 최소의 피해로 적 지휘부를 동시에 마비시키는 동시마비 전략을 수립하여 수복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력 개선과 국방개혁(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이룩하여 통일안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強과 2+4의 韓半島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자체내 체제의 붕괴를 가져와 평화적으로 국토통일과 민족통합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한반도도 테러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테러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탈냉전시대 후 미 정보기관의 기능축소 및 대테러리즘 정책이 부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남갈등에 의한 국론분열과 국가정보기관의 안보정보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9·11 테러가 미 본토에 대한 테러리즘 위협 과소평가 및 신속한 위기관리체제 부재에서 기인했듯이 우리의 위기관리체제는 완벽한지 그리고 공항과 기내의 보안체제의 점검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국 테러참사와 관련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지향과 테러예방을 위한 탑승객의 보안검색체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

가. 세계적 테러연대조직을 근원적으로 분쇄하려는 ‘Bush Doctrine’에 적극 공조

지금 세계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반(反)테러연대에 경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느낌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지역에서의 주도권 회복과 체첸문제의 해결, 중국은 경제적 실리와 위구르지역의 이슬람테러 문제해결 그리고 일본과 독일은 미국과의 대(對)테러협력을 통해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국제사회는 참여하고 기여한 만큼 영향력과 지위를 보상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대외적으로 반(反)테러연대에 적극 동참하고 대(對)테러전에 비전투원은 물론 전투병도 파병해야 할 것이다.

어떤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전략은 위협의 실체가 초국가적일 때 가능하나, 그 추구하는 전략은 각 나라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미국의 9·11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연대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전략면에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위협의 종류와 심각성, 대처능력면에서 상이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미국과 NATO지역, 그리고 태평양지역의 국가별로 위협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공동대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²²⁾

미국은 테러위협을 우선순위를 첫째, 특정국가의 지원을 받는 회색테러조직으로, 초국가적으로 분권화되어 식별과 파괴가 어려

은 경우 둘째,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경우 셋째, 핵심적 정보기관에 대한 공격위협이 되는 경우 넷째, 불법적 마약거래의 위협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NATO는 테러리즘, 정보기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고, 러시아는 체첸반군의 테러와 마피아 조직의 범죄, 일본은 무기 및 탄약의 밀매와 해적활동, 중국은 소수민족의 테러와 마약밀매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여기서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마약밀매, 밀입국, 해상범죄 및 주변국과의 어업권과 자원관련 마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제한된 능력으로 한국의 특수성과 국제적 연대가 요구되는 포괄적 대응전략을 찾아야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존재라는 위협의 특수성이 일반적 테러조직이 주는 위협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이라는 또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오사마 빈 라덴 개인이나 다른 테러조직의 위협은 비중면에서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이 이번 반테러 국제적 연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위협의 실제적 측면보다는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외교적 차원에서 국익우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 북한의 테러전략과 World Cup 2002 대비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강화

북한에 대한 대(對)테러전략상의 위협의 인식은 현실에 비해 너무 미약하게 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테러에 대해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기습사건때는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로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상응한 보복을 구상했었으나 제한된 능력으로 자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김현희 일당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은 당시의 일반적 테러사건에 비해 수법의 잔인성과 희생자 규모면에서 대량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이웅산 테러사건도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의 중요 각료 상당수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희생된,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현존하는 테러위협이 실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나 정권적 통일정책의 변화로 인해 자극적 대응을 자제한다는 취지아래 그 위협에 대한 인식 자체를 망각하는 현상이 혼재되어 있다 하겠다. 이것은 차체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대테러 대응능력을 알아보고 2002년 World Cup을 대비, 테러방지를 포함한 우리의 대(對)테러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1991년 걸프전을 보고 김일성은 “앞으로 남조선과 전쟁은 특수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가 대패한 것은 특수부대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며 북한의 대남공작능력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한국 내부에 교란공작조를 계속 침투시키며 2만명의 저격조가 북한 내부에 그리고 8만명의 특공조가 전방 특수부대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여기에 대한 현재 우리의 대(對)테러 대응능력은 첫째, 군사적 대응능력을 포함하여 육군 특전사령부의 707 특수입부대와 경찰의 특경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수방사의 일부 부대와 해경 그리고 향토사단의 지역방어 및 인력동원 기능도 2차 투입가능 능력으로 포함할 수 있다. 둘째, 대테러관련 정보확보 차원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부처와 검찰 및 경찰의 외사과 마약담당부서 그리고 공항과 해안지역의 세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신속한 위기 관리기능면에서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적 기관은 앞에 열거한 군, 경찰, 검찰, 세관 외에도 국정원, 기무사 등과 정보공유와 다른 기관과 유기적 협조가 절대적이다.²⁴⁾

따라서 위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대테러기구의 통합과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차체에 테러를 포함한 마약, 해상범죄와 밀입국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식을 채택하여 국가위기관리 기능의 통합과 강화를 해야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통합의 의미는 수단적 기구의 전체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방향을 결정하며, 가용수단의 참여폭과 통제의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할 중추기능적 위기관리기능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계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의 강화이다. 위기관리기능의 통합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와 행정부의 민방위관련 기구의 통합움직임이 실패된 사실은, 조직의 효율성과 당위성보다는 통합의 현실성이 부처간 이해관계에 의해 의외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대테러 전략의 경우 상황이 발생한 후에 태스크 부대(Task Forces)를 조직하거나 민·관·군 통합작전으로 대처하기에는 예방능력의 미흡, 대응의 적시성과 능력발휘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의 중추신경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법령, 제도화는 비록 쉽지 않을 것이나 장치의 테러위협과 국제적 반(反)테러연대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02년 월드컵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약 35만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되고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약 5조 3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²⁵⁾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테러참사 이후 월드컵 대회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다. 장쩌민(姜澤民)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40만명의 관중과 세계적 선수들이 참가하는 월드컵 경기는 테러범들에게 매력적인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컸다.

한국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의 안전을 책임져 본 경험이 있다. 당시 10만명 이상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었으며 17일간의 대회기간중 미국의 위성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 대회는 경제해야 할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88 서울올림픽'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테러사태를 계기로 2002년 월드컵 대회의 패러다임을 '경제 월드컵'에서 '안전 월드컵'으로 전환하고 각 경기장마다 X-ray 검사대를 설치하고 경기장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설정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7일 북한이 테러반대 국제협약에 가입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는 7개국중의 하나이나 차체에 테러문제에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자세를 보인다면 북·미관계의 개선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V. 결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붕괴된데 대해 크게 고무되어 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탈레반의 패퇴는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인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또는 사살하고 그의 알 카에다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데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노예제와 원주민 학살에 대한 죄값을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세계 테러네트워크를 뿌리뽑기 위해 계속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중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난 9·11 테러참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다. 미국 정부는 물론 서방의 주요 언론기관들의 논리도 이번 테러는 서양과 광적인 이슬람 과격분자의 충돌이며 테러집단 토벌작전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는 선악의 원론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이후 사실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인류를 부국권과 빈국권을 엄격히 구분하여 석유와 원료를 보유하고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이 빈곤, 기아, 질병, 전쟁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외면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자유방임주의 무역과 특히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애초 미국의 말파는 달리 자본이 부국권에 80% 이상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제3세계 개발을 위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미국은 1997년 한국 등 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 발발에도 주역을 담당했다는 설이 있다. 이 외환금융위기는 공식적으로는 아시아의 연고주의적 자본주의, 무능한 경영 등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아 나라들에게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요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다는 것은 미국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역사적인 큰 역할을 한 고르바초프도 세계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반면 미국의 주도권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부시 대통령에게 "21세기가 미국의 세기가 된다는 환상을 버려라"고 충고한 바 있다.²⁶⁾

그는 세계화는 정착되고 있으나 이를 미국화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미국화는 공허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냉전의 승리자이나 세계인이 빈곤과 곤경에 처해있는 한, 미국인들이 누리는 번영과 행복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내다보았다.

한편 프랑스의 정치학자 아탈리(Jacques Attali)는 미국은 1918년 구대륙에서 대량살상을 멈추게 했고 더 나아가 1945년 전 체주의라는 괴물을 쓰러뜨렸으며 자신의 힘만으로 군비경쟁을 통해 소비에트의 공산주의를 소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전세계에 자신의 꿈을 제공함으로써 "아메리카 드림은 이제 지구촌 전체의 꿈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²⁷⁾

이러한 상반된 주장속에서 '21세기 새로운 전쟁'이라는 미국의 9·11 테러참사와 아프간전쟁을 국제관계사적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그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도 아니며 오사마 빈 라덴이 주장하는 '제2의 십자군전쟁'도 아니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행위임이 분명하다. 다만 그들의 테러행위를 약자의 저항이라는 관점으로 역사적 테러과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썼으며 우리의 안보와 관련하여 대(對)테러방지대책을 논의하였다.

혹자는 이번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프간공격을 제국주의에 대한 반제국주의의 저항으로 보는 이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된다.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외국의 자본가들이 값싼 후진국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얻은 이익을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국제적인 빈부의 차이를 심화시킨다는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론은 호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과 다르다. 한때 후진국이었던 일본이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등장하고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이 쇠락한 것은 이

런 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한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후진국들이 자본주의 경제로 강력히 발전한 것도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오늘날 저렇게 경제난을 겪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테러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배경과 원인이 세계적 자본주의에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비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²⁸⁾

한국은 그동안 많은 테러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을 비롯하여 '미얀마 이용산 사태', 'KAL기 폭파사건' 등 수많은 테러가 있었다. 대부분 중동지역과 관계가 없는 북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지만, 이번 미국 테러참사를 통해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새롭게 대테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기에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경제질서속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의 지향방향과 테러방지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중동국가들과 큰 원한관계는 없으나 테러행위는 예측불가능하고 보편적인 인류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아직도 미국에 의해서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번 기회가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의 절호의 기회라 믿어진다. 북한은 이번에 테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그것으로 미흡하고 미국이 앞장서는 반(反)테러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여성 구호관계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위로의 뜻을 전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²⁹⁾고 밝힌 것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1단계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반테러 국제공조에 지원병은 물론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동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국가기관보다 민간교류를 통한 민간 외교수준에서 국민들간의 유대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로 세계 테러네트워크의 뿌리를 제거하고 세계인이 편안히 비행기에 탑승하고, 고층 빌딩에 마음대로 오르고, 편지를 자유롭게 뜯어볼 수 있는 국제사회를 하루속히 이룩하는데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8) ibid

9) Jin-Tai Choi, "Aviation Terrorism"(London: Macmillan, 1994) P.42

10) Paul R. Pilla, "Terroism and U.S. Foreign Policy"(New York, 1997)

11)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0"(US DoS, 2000) P.33

12) 클린턴, 상거서

13) Francis Fukuyama는 그의 저서 'The End of the History(역사의 종말)'에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다음에 첫과 끝이 흐르는 공산주의 세계가 온다는 역사의 필연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14) New York Times, "US attack Afghan: Osama bin Laden and Taliban"(October 13, 2001)

15) Samuel Huntington, "The Age of Muslim Wars" Newsweek, Special Davos Edition, issues 2002(Newswweek, December 2001-February 2002)

16) Francis Fukuyama, "Their Target: The Modern World" The real enemy; Radical Islamists, intolerant of all diversity and dissent, have become the fascist of our day. That is what we are fighting against.(Newsweek, December 2001-February 2002)

17) 동아일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테러리즘"(2001년 9월 13일)

18) US Department of Defense, "Road Map for National Security" DoD, 1997, P.52

19) 허남성, "미테러사태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전망과 우리의 대응"(국방대학교 학술세미나 발표문, 2001. 11. 14)

20) 시사저널, "미 항공업계의 탑승객에 대한 검색소홀이 테러 사태를 불렀다."(시사저널 제622호, 2001년 9월 27일)

21) 로마시대의 명장으로 군사사상 및 전략의 시조로 불리우는 Vegetius 장군의 격언

22) 박선섭, "초국가적 안보위협: 개념, 다국적 접근, 상호 운용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9)

23) 남주홍, "대 테러전쟁과 남북한 관계" 한국발전리뷰 2001 통권 108호(한국발전연구원, 2001년 11월)P.42

24) CDI, "Terroism Porject: 정부조직인 CIA와 DoD 그리고 FBI간 협조와 군과의 상호운용성" <http://www.cdi.org/terrorism/military-priorities.cfm>

25)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 컵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개발연구원, 2001)

26) Mikhail Gorbachev, "The 21 Centry is not the Centry of United States"(U.S. Washington Post, December 25, 2000)

27) Jacques Attali, "신교림주의로 가는 미국" 조선일보(2000년 12월 27일)

28) 노재봉, "테러전쟁, 이념대결이 아니다"(동아일보, 2001년 11월 1일 칼럼 참조)

29)동아일보, "북미관계 당분간 암흑기"(동아일보 2001년 11월 28일)